

<중구청소년문화의집과 함께 하는>

청소년 인권 토론회

수능 이대로 좋은가?

- 일시 : 2004년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
- 장소 :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3층 다목적 홀
- 주최 :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 주관 : 편집 동아리 글오름
- 후원 : 울산YWCA 청소년인권센터

<중구청소년문화의집과 함께 하는>

청소년 인권 토론회

수능 이대로 좋은가?

- 일시 : 2004년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
- 장소 :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3층 다목적 홀
- 주최 :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 주관 : 편집 동아리 글오름
- 후원 : 울산YWCA 청소년인권센터

차 례

- 진행 순서 1

- 청소년 현장 2

- 청소년 인권 선언문(학생의 날 기념) 3

- 패널 발제 자료 4

- 참고 자료 15
 - 획일적 입시위주 교육과 청소년의 인권
남궁정 (이대부고)· 김상이 (청원여고)· 전누리 (구로고)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 입시위주 교육과 학생인권
이문석 (전교조 학생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소개 26

- 평가서 27

이런 순서로 진행 됩니다.

★ 사회 : 김 동 후 (중구청소년문화의집 간사)

- | | |
|--|--------------------|
| ▶ 진행 방법 및 패널 소개 | 4:00 ~ 4:10 |
| — 사회자 | |
| ▶ 청소년 인권 운동가의 한마디 | 4:10 ~ 4:25 |
| —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전 누 리 (구로고등학교 2학년) | |
| ▶ 질문과 응답 | 4:25 ~ 4:30 |
| — 청소년 인권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과 응답 | |
| ▶ 패널 발제 | 4:30 ~ 4:50 |
| • “수능시험 과연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 - 심성민 (대구한의대 청소년지도학과 2) | |
| • “수능패지 좀 더 생각 해보자.” - 김윤정 (편집동아리 글오름대표 성광여고 2) | |
| • “수능시험의 문제, 그 근본적인 해결방안부터 강구해야” - 박성오 (편집동아리 글오름 성신고 2) | |
| • “수능, 이대로 좋은가.....” - 이은영 (울산광역시 청소년 상담실 선임 상담원) | |
| ▶ 패널 토론 | 4:50 ~ 5:20 |
| — 패널들의 자유 토론 | |
| ▶ 관객과의 토론 | 5:20 ~ 5:40 |
| — 참석자 및 패널들과 함께 자유 토론 | |
| ▶ 정리 발언 및 찬반투표 | 5:40 ~ 5:50 |
| — 참석자 및 패널들이 찬성과 반대 투표 | |
| ▶ 마무리 | 5:50 ~ 6:00 |

청소년 헌장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 청소년의 권리 ■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영양·주거·의료·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의 권리 ■

1.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1.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1. 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 청소년은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1.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1.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1.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998년 10월 25일

◆ 청소년 인권선언문 ◆

청소년은 자라나는 새싹이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더라도 참고 이겨내야 한다는 말은 20세기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새로운 희망의 시대인 21세기는 청소년들에게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낡은 시대의 사고 방식으로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낡고 병든 교육제도로 청소년들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한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말하는 미성숙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정부가 제시한 청소년 헌장은 빛 좋은 개살구일 수밖에 없다.

시대는 바야흐로 인권의 시대, 평화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 청소년들은 이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사명감과 행복한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이 현실을 거부하고 민주적인 학교와 사회의 주체로서 당당히 나아가고자 다음과 같이 우리의 권리를 명백히 밝힌다.

- 청소년은 인간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누려야 하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청소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학교와 사회에서도 보장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 청소년은 부당한 체벌과 언어 폭력 등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
- 청소년은 빈부, 성별, 종교, 학력, 연령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청소년은 다가올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올바른 통일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아리, 소모임 등을 만들어 자율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학생회를 중심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 청소년은 학교의 주인으로서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학교 운영위원회에 하나의 교육주체로 참여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
- 청소년은 민주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두발, 복장, 자치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학칙 및 생활규범의 비민주적인 조항을 스스로 개정해야 한다.

- 청소년 인권 운동 이제 시작이다.-

전 누리 (구로고 2)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모임 대표

한 것도 없이 무슨 운동을 했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럽지만 제가 어떻게 어디서 청소년 인권운동을 했는가 하기보다 앞서 청소년 운동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2가지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이라는 단체를 학교 학생회 선배를 통해 알게 된 것이었고 두 번째 계기는 그 '희망'을 통해 5월 달에 서울에서 열린 청소년 인권토론회를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학교 학생회 활동을 하는 저에게 '희망'이란 단체는 학생자치문제-학교 학생회-에 어떤 전문적인 시각을 갖게 해주었고, 학생자치문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키워 가는 중 단체를 통해 청소년 인권토론회에서 발제토론을 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토론회에 나가는 친구들과 발제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예비 토론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준비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는데 다른 학교의 사례와 친구들의 사실적인 경험담을 통해서 입시제도가 어떻게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삶,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 이상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토론회 준비로 인해 제 스스로 한 가지 마음속에 결정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결정은 어떤 청소년 문제를 인식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 행동, 즉 운동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속의 결정, 결심이 있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학생회 모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태어난 것이 바로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라는 학생회 모임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어서 학생회 모임으로 하게 된 것이 주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자'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적은 학교 안 학생자치의 실현과 동시에 그런 학생자치 실현을 통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학생-청소년-들의 침해받고 있는 인권 현실을 개선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활동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자'라는 단체를 창단하고 활동하고 있는 중 인권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션 스쿨 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외친 '강의석'형이었습니다.

의석이형을 처음 만나게 된 곳은 형이 대광 고등학교 수요일배 거부선언을 하고 처음

일인 시위를 시작한 서울시 교육청이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청소년 인권문제-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해 다시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부분을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의석형과 같이 행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은 의석형이 단식을 시작한지 45일이 넘어가고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면서 더 이상형에게만 짐을 지울 수 없다고 생각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청소년들도 의석형의 뜻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게 되었고, 마침내 학내 종교자유 문제가 언론의 많은 집중을 받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뜻을 사회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활동 이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학생회 법제화 운동과 75돌을 맞는 학생의 날-11.3- 준비를 하였습니다.

학생회 법제화 운동 같은 경우 개별 학교 내 학생 자치 실현의 첫 발판이 될 수 있는 활동이기에 시작하게 되었고

학생의 날 같은 경우 사회에 학생-청소년-들의 요구를 알리자 라는 뜻 아래 청소년 7대 요구 기자회견, 및 기념행사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학생의 날 행사를 준비했던 기획단 친구들과 같은 뜻을 모아 청소년의 인권 등 청소년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임을 만들게 되었고 활동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운동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대부분의 운동과 청소년의 인권문제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많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도의 일어났던 두발자유화 운동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겠고 청소년 문화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운동 역시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삼아 주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청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 역시 많은 곳에서, 또 심각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션 스쿨 내 종교자유 문제 역시 사실 예전부터 문제는 심각했지만 종교문제로 인해 전학을 선택하거나 심지어는 학교를 자퇴하는 경우까지 발생, 결국 '강의석'형이 문제를 터트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청소년들의 인권이 침해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야 하는 계도적 대상-객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른들의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현실적, 제도적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치열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입시 제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현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활동들은 더욱 활발히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단기적인 사회적 여론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벌이는 이슈-파이팅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 의 방식보다는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체적으로 그 현실 상황을 개선하려는 직접적인 방식의 노력들이 대부분 활동의 주를 이룰 것이라 생각됩니다.

쉬운 예를 들면 2000년도의 노컷 운동을 이슈 파이팅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현재 서울에서 몇몇 학생회를 중심으로 두발 용의복장 규정을 개정하려는 활동들을 후자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인권운동에 대한 몇 가지 제 생각들을 얘기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주제를 얘기하기에 앞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메모란

- 수능 시험 과연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 -

심성민

대구 한의대 청소년 지도학과 2년

지금의 중, 고등학생들과 그 외의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은 어쩌면 수능시험의 제도가 하루 빨리 어떻게 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지금의 현실을 벗어나고파 몸부림을 칠 것이다. 더욱이 성적 발표가 하루하루 다가 올 수록 바짝 마른 침 넘어가듯이 초조와 불안의 일상일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수능시험을 치지 않았거나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대학을 들어간 친구들은 이 수능시험에 대해서 조금은 무감각해져 있지 않을까 생각 해본다.

그들은 혹 이 수능시험 제도에 대해서 현행대로 진행 해 나가자는 일부도 있을 터이고, 수능시험을 치되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한 명의 대학생으로서 또 수능을 치른 선배의 입장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 개인적인 결론을 맺고 싶다.

그 첫 번째로 만약 수능시험이 폐지된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대학을 가게 될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대학 입학할 허가 해 준다는 것인가?

아무래도 가장 먼저 중정적으로 큰 비율을 가지게 되는 것은 내신성적의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각 학교별로 책정된 내신성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등급별로 나누어 그것을 대학으로 보내 대학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학내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이 되는 것이고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 해 보고 싶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좋은 대학, 일등인 대학, 우수한 대학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동일할 것이다.

자식들이 좀더 나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담당 교사들에게 촛지 혹은 기타 향응 등을 베푸는 - 이런 일들이 다반사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소수의 선생님들 가운데 - 일도 허다할 것 같다.

그런 혜택 등을 받은 선생님들은 분명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그 학생에게는 많은 점수 및 내신등급이 올라 갈 수 있는 편애 등을 부여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그렇다 보면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다른 학부모들도 그것보다 많이 더 많은 경쟁심 등이 유발되고 또한 학생들 가운데도 서로간의 우정보다는 성적 지향주위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수능시험을 현행대로 계속하자면 과연 오늘날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수능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풀어 갈 수 있을까?

현행의 수능시험에는 한계점들이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화이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수능에 충격적인 사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획일화 된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은 숨을 쉴 시간조차 없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형태의 수능시험이 현행대로 나간다면 자신이 원하는 공부는 할 수 없을 뿐 더러 수능이라는 틀에 박혀 자신의 본 모습을 잃을 수가 있다.

여기서 결론을 말하고 글을 맺고 싶다.

나는 수능시험을 쳤으면 하는 사람중의 하나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행대로 유지하며 실시하자는 말은 절대 아니다.

몇가지 보완점등을 제시 해보면 우선 모의고사 형식의 수능시험을 2~3번을 쳐서 평균 점수를 계산하여 기본 점수를 내는 방법과 그 와 아울러 내신 점수를 함께 합산하여 대학에 들어가는 평가 기준으로 삼으면 하는 생각이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신 등급에 점수를 매기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신 등급을 점수로 정할 때에는 굳이 학교에서의 생활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청소년들의 문화 생활 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내신을 매기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문화 활동의 측면에서도 부여점수가 높아 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다른 학업에도 역시 능률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 외 활동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거부할 권리도 있으나 단지 이것은 하고 싶은 이들에게 알파요인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나의 바람이다.

나도 수능시험을 쳐서 대학에 온 학생이다. 한때는 수능시험이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수능시험이 없어짐으로 해서 내신을 잘 받으려고 친구들간에도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불타오르고 그로 인해 친구와의 사이도 어색해 질 수가 있고 선생님에게도 잘 보이려는 행동들이 다른 친구들에게는 좋지 않은 면모를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본인의 이야기 한 것들이 현재로서는 힘들 듯 싶으나 그래도 다시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수능시험이 없어지려면 우선 현 입시제도, 교육 정책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공부할 권리도 주어진다.

하지만 현실의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로지 수능시험위주의 수업과 획일화로 인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러기에 수능시험을 더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를 해 보고 수정 및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수능폐지 좀 더 생각 해보자.

김운정

편집동아리 '글오름' 대표 성광여고 2

'수능은 로또다'

우리들이 흔히들 비유하는 말이다. 그럴 만도 한 것이 12년 동안 공부한 것을 단 하루만의 시험으로 평가한다는 것에서 대박 이냐 아니면 실수로 인한 한번의 실패냐 하는 인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로또는 밀쳐야 본전이지만 수능은 인생의 좌절을 맛보게 하기 때문이다.

1994년부터 실시된 수학능력시험은 해마다 수능 점수 비관 자살, 공교육의 붕괴, 입시위주의 교육과 사교육비부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왔다.

그런 점에서 조금씩 불거져 나오던 수능 폐지 문제가 10년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화두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과연 폐지만이 학생들이 부담을 줄이고 제 특기를 살려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붕괴한 공교육을 다시 세울 수 있으며 사교육 시장을 잠식시킬 수 있을지를 말이다.

지금 수능이 폐지된다고 해서 수능을 대체 할만한 최고의 방법은 있는 것일까?

7차 교육과정도 수능 위주의 교육보다는 내신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구성된 것이지만, 결국엔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만 늘일 뿐이다.

특히 굳이 수능이 아니더라도 수시 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충분히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내신에 강하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에 임해온 학생들에게 손해 갈 것은 없지 않은가?

단지 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 했던 학생들은 또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내신 성적을 몇 번만 망쳐도 원하는 대학교나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곳에 진학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수능에 피해를 본 학생들보다도 수능으로 인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한 내신과 특별 전형으로 바뀌었을 때 명확한 입학기준이 없어 학생들의 불안감과 불신만 야기 시킬 뿐이다.

"그놈은 멋있었다."의 작가 귀여니는 단지 그가 낸 인터넷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이유로 성관관 대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역시나 가수 다나는 기획사를 따라 중국에 몇 차례 공연차 다녀온 게 전부지만 웬일인지 고려대 중문학과에 합격이 되었다.

비단 이 뿐만은 아니다. 연예인들과 부잣집 자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 전형 등으로 쉽게 대학에 입학 할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해온 일반 학생들과는 불평등하게 된다.

수능이 없어야 공교육이 살아난다고들 하지만, 교육열 높은 나라에서 대학교들마다 서열이 다 정해져 있는데 폐지된들 사교육 시장이 붕괴되고 얼어 있던 공교육이 살아 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체육 음악, 미술들에 비중을 맞춘 각종 내신 전용 학원들이 늘어갈 것이고 입시학원 만으로도 충분히 피곤한 학생들은 체육학원, 음악학원, 기술 가정학원 등 내신을 위해 더 많은 학원에 다니게 될 것이 자명한 일이다.

오히려 수능에 교과서 관련 내용을 출제시킨다거나 입학할 시 수능, 내신 비율로 학생을 뽑느니만 못하다는 것이다.

본고사를 시행 하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공교육의 붕괴를 더욱더 악화시킬 뿐이다. 각 대학에서 행하는 고사가 다른 만큼 학교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다 가르쳐 주지 못하고 유형을 각 유형을 파악하는데 만 해도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히려 서울대 전용 입시학원, 고려대 전용 입시 학원..... 등 각 명문대의 본고사 유형을 분석한 학원들이 속속들이 생겨 날 것인데 이 속에서 교과서만을 가르치는 공교육에 설자리라도 있을까?

수능이 아무리 말이 많다 하더라도 제 3자의 의견이나 압력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자신의 점수를 평가할 수 있는 최고의 제도이다. 수능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는 또 무엇이 있겠는가. 대학의 서열화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수능을 폐지 한 다해도 또 다른 형태의 입시 과열이 나타날 것이고 해마다 한두 명씩 자살하는 현실이 더 늘지도 더 줄지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병을 낫게 하려면 병원을 뽑아내야지 곁에 고름만 닦아낸다고 병이 나을 수 없듯 근본적인 원인은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애꿎은 수능만 폐지한다고 해서 과연 누구에게 좋을지 학생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수능, 이대로 좋은가.....

이 은 영 선임 상담원

울산광역시 청소년 종합 상담실

전국 100만 수험생들이 숨죽여서 치른 수능이 끝났다.

그 시험을 잘 치기 위해 그들이 공부한 십 수년의 대가는 너무 허무했다고 한다.

그렇게 십 수년을 준비했는데 이번 수학능력시험이 영역별로 쉽거나 어려워서 변별력을 잃었다고 아우성이다.

해마다 나온 이야기들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운이 나빠 시험을 못 치고, 그냥 대충한 학생은 상상외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벌써부터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다.

이 자리에서 그런 수능시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변별력이 없을 정도로 쉽거나 어려운 수학능력 시험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서 먼저 생각해 보겠다.

먼저 수능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의 교육 관계자는 수능이 계속 쉬워지면 과외가 없어지고, 학력중심의 사회가 없어진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수능을 어느 정도 쉽게 출제할 것이라고 한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능이 쉽게 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대학에서는 다르다.

학교 서열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결국 1등에서 100만 등의 등수가 매겨지고 그 학생들이 0.01점차로 입학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빚어진다고 한다.

그렇다고 대학에서 다른 기준을 제시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다.

또한 찬성하는 일부 교사는 수능을 단순히 자격시험 정도로 생각하자고 한다.

대학수학능력이 있는지 그 판별하는 의미 정도. 이미 프랑스에서는 대학입학검정을 위한 '바칼로레아(baccalaurat)'란 국가자격시험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로만 하는 말인 것 같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주어야 하는데, 아무런 장기 계획으로 준비하지 못한 대학에서는 무슨 근거로 학생을 뽑을 것인지. 도무지 논리상의 오류를 범하는 말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 나는 우리나라의 수능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과연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능을 쉽게 낸다고 해서 과외가 줄어들 수 있을까 의문이다.

수능이 쉬운 것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과외를 시킬 것이고 많은 수험생, 학부모들은 수능이 변별력을 가질 정도로 출제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한때 멀리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나 강남과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에게 공평한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고 사교육의 열풍을 잠재울 수 있는 파격적인 해결책으로 EBS교육방송의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여전히 방송교육과 교재풀이를 위한 과외와 학원수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인가!

어떤 명확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방편들은 백년을 준비해야 하는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런 소득 없는 메아리에 불과할 뿐인 것 같다.

따라서 수능의 존폐를 걱정하기 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확립과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나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수능과 연계되어 진행될 논의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런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부관계자들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 아니라 진정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현장을 잘 소화해 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수능시험의 문제, 그 근본적인 해결방안부터 강구해야

박성오

편집동아리 글오름 기획 성신고 2

1994년 수능능력시험이 도입되면서 현 2005년까지, 수능능력시험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 예로 단 한번의 시험을 위해 12년간 공부를 했던 청소년들 어깨에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좋은 성적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이 한번의 시험으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대학교로의 진학을 하게 된다.

그로 인해 수능이란 입시제도는 학생들에게 명문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겨났고, 이러한 강박관념은 학벌사회라는 대학 서열구조를 만들어 냈다.

또한 언제부터인가 대학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곳이 아닌 꼭 들어가야만 하는 곳으로 의식이 바뀌어, 대학교의 기본교육 이념인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는 곳이 아니고 자신의 수능 점수를 따라서 진학하는 곳이 되었다. 대학진학 후에는 자신의 적성이 맞지 않으면 편입을 하게 되는 모순도 볼 수 있다.

최근에 핫 이슈로 떠오른 수능 부정의 문제점과 수능 점수를 비판하여 자살하는 학생들을 보자면 우리 나라의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점수를 매겨 성적순으로 순서를 매기는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는, 부정행위의 유혹에서 뿌리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고등학교 재학부터 내신을 부풀리고 알뜰한 입시요령 같은 것을 가르치는 일에 떠밀리기 십상이다. 결국 성적순으로 순서를 매기는 현행 입시제도가 대입을 앞둔 청소년에게 부정행위를 권유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수능에 임한 자에 한해서는 수능을 비판하여 자살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수능시험을 표본으로 삼아, 우리의 낡은 평가체제를 개혁하고, 교육이 학생들의 자율적인 교육의 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럼 앞으로 수능시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그 방법을 보자면 우선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다른 입시제도를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고등학교부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기를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대학교에서도 수능을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실기고사 및 기능 특성화 테스트를 개발하여 복합적이고 다중화 된 테스트로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현재 볼 수 있는 서울대 지상주의를 타파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를 나와야만 사회의 부유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학생들의 인식이 퍼지고, 국가 또한 대학서열을 나눠주는 수능 제도를 첫 시작으로 타파해야 할 것이며, 그 대책을 보자면 모든 국립대의 진학조건을 동등하게 하고, 졸업생 역시 동등하게 대우하는 대학교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2008년도 새로운 수능 제도가 개선된다고 한다.

현행 수능 제도의 문제점을 비추어 보자면 2008년도 입시제도 역시 대학의 학생선발 등에 혼란이 예상될 것이다. 그렇기에 교육부는 앞으로 좀 더 학생들의 특기를 살려서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을 가져야 하며, 기존 입시제도 폐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획일적 입시위주 교육과 청소년의 인권

남궁정 (이대부고 2) · 김상이 (청원여고 2) · 진누리(구로고 2)
(21세기 청소년공통제 '희망')

우리는 흔히 청소년을 '미래의 희망'이라고 칭하는 표현을 주위에서 많이 접한다. 확실히 청소년들은 기성세대 이후의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큰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은 아마 백번을 생각해봐도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 집에서, 사회에서 항상 '꿈을 키우고 주체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2004년 현재, 사회적으로 그러한 '의무'가 주어지는 우리 청소년들의 권리, 청소년들의 인권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입시위주 교육'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인권에 대한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생각해보았다.

1. 강제적인 0교시, 보충학습, 야간자율학습

0교시를 실시하는 학교들의 등교시간은 평균 오전 7시-7시 30분 사이이다. 새벽 5시 30분-6시 사이에 일어나서 졸린 눈을 비비며 급하게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은 뒤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로 향한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년들은 0교시 시간에 대부분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졸음을 못 이겨 잠을 잔다. 그나마 아침 일찍 아이들을 불러 수업을 해서 학교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효과마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특기적성'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는 0교시 수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규수업 진도를 그대로 나가거나 문제집을 푸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당초 '특기적성교육'의 목표와는 아무 관계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방과 후 보충학습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7시간의 정규수업이 끝난 뒤에 청소년들은 씻거나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똑같은 수업을 2시간 더 들어야 하는 것이다.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서 '특기적성'의 강투를 씌우는 것은 0교시와 같다. 특히 보충학습은 여름방학에는 평균 15일, 겨울방학에는 30일 정도를 역시 '특기적성'이라는 명목으로 실시되고 있고 심지어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는 일요일을 비롯한 공휴일에도 학교에 나오도록 하고 있다.

야간자율학습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밤 9시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밤 10시, 11시를 넘기면서까지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시키는 학교도 있다. 자기 몸을 꼬집으면서까지 졸음을 참으며 억지로 공부를 하는 청소년들 중 일부는 '야자'가 끝나고 또다시 집에서 과외를 받거나 학원으로 향한다.

평균 수면시간은 4시간-6시간, 청소년들은 다음날에도 또 다음날에도, 3년 내내 이러한 일과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0교시/보충학습/야간자율학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 청소년들에게 건강상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엄청난 신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준다는 것이다. 하루에 너댓 시간을 자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한 생활이 반복되면서 누적되는 피로는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어깨/허리통증, 눈의 피로, 피부 손상은 물론, 장시간 의자에 앉아있음으로써 척추에 무리를 주게 되고 정신력 저하와 학습의욕 감퇴, 불면증, 노이로제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심신의 안녕을 보장하고

보호해줘야 할 청소년들을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심신의 안녕'을 침해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0교시/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는 학교 측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시키는 것이다'라는 논리로 학부모들을 부추기면서까지 청소년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을 강제로 학교에 잡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꼭 강압적으로 선생님이 강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서 '싫다',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생활태도를 보고 선생님들께서는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신다. 모든 것이 입시와 연결되어 있는 현실에서 솔직히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는 학교와 교사의 압력, 체벌과 징계, 폭력까지 동원되면서 청소년들이 순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 일반화되어있어 학교라는 곳이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선택의 자유'라는 권리를 박탈하고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여가시간을 갖는대거나 자기개발을 할 시간은 고사하고 생리적인 활동을 할 시간, 수면시간마저 부족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교시/보충수업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감을 주는 것도 폐해 중 하나다. 정규수업이 아닌데도 4만원-10만원의 '특적비'를 강제로 더 내야하는 것이다. 아예 수업료에 포함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문제집 등 교재를 따로 사야하는 경우에는 과목 당 8천원-9천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완전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돈을 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0교시/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을 시행했을 때 과연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가. 앞에서 밝힌 것처럼 이 시간에 청소년들은 부족한 잠을 보충하거나 너무 오래 이어지는 수업에 집중력이 크게 떨어져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특별한 내용이 없이 교과진도를 나가는 수업은 청소년들을 다시 사교육에 의존하게끔 만들고 있다. 어쨌든 많은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몇 시간을 보내든 상관없이 아직도 계속 학원에 나가고 과외를 받고 있다.

이러한 0교시/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의 문제들은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에서, 평준화 지역보다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더 광범위하고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파행운동을 방관하고 묵인하는 교육당국에 의해 이러한 문제는 개선하려는 노력은 물론이고 시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0교시/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이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인권침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입시 위주 교육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대학입학만을 최우선 가치로 보고 '입시를 위한 효율성과 능력' -사실은 그리 효율적이지도 않지만- 만을 중시하는 학교교육과 교육제도가 고쳐지지 않는 한 이러한 강제적인 0교시/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은 계속해서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면서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앞서 이야기 한 0교시 등 불법적인 비정규 수업이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상으로써, 바로 청소년들이 교육주체이자 학교의 주인으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생자치활동'을 할 시간마저도 빼앗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청소년들이 이러한 극심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아무 말 못한 채 순응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

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하거나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입시위주 교육이 청소년자치활동을 어떻게 방해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 본다.

2. 청소년자치활동 - CA/동아리/학생회

1) CA/동아리

우리의 속에 어떠한 재능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숨겨진 끼와 재능을 찾아내고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된다. 학교 안에서의 CA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활동들은 정말 우리의 재능을 찾아내어 개발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설정되어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먼저 CA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살펴보자. 학교에선 오직 공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공부 외의 다른 시간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활동 시간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1년에 고작해야 10번 안팎인 활동으로 과연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또 아이들은 CA나 동아리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 하지 못하고 있다. 활동 시간을 우리의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인식 하기보다는 적당히 시간이나 때우는 시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다양성과 전문성부족, 중요성 교육 부족, 예산부족등과 같은 이유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CA나 동아리활동의 선택의 폭은 제한되어있어서 다양성이 부족하여 대부분 비슷비슷한 CA,동아리 모임이 생성된다. 어느 학교에선 25개정도의 CA 중에서 영화 감상반만 14개 정도가 있다.

또한 그 동아리나, CA의 담당 선생님은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 학생들의 의욕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그 동아리나 CA의 뚜렷한 목표나 색을 잃게 된다. 또 이러한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서 CA자체를 노는 시간이라 오해하는 아이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정부는 단순한 입시제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게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향해 이러한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처럼 CA,동아리 활동을 방과 후 운영 하여 입시제도에 반영 한다든지,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추천서를 받아 입시에 반영한다든지 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려면 금전적 문제, 즉 재정 지원이 해결되어야 한다. 어떤 학교 밴드부는 밴드부 임에도 불구하고 연습실이 없고 악기가 없다. 하지만 학교는 학교 측이 알 바가 아니라고, 예산이 없다며 외면한다. 이렇게 금전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CA나 동아리 활동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분명 우리는 입시제도의 판에 박힌 공부 외에 자신도 모르는 재능, 개발해야한다는 사회적요구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외침들을 듣지 않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묵인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든다. 하루빨리 교육관계기관과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과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게 해 이러한 괴리감을 없애야 할 것이다.

2) 학생회

학생회는 흔히 '학생 자치 활동의 꽃'이라고 이야기 될 만큼 중요한 자치활동의 영역이며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학생회가 자기 본분을 다하거나, 활발히 활동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현 중·고등학교 학생회가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 이유는 바로 입시위주의 교육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학생회 활동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학생회 간부들도 중간고사에 기말고사, 수능이 닥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학생회 활동을 접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도 학생회, 동아리 활동, 축제 등등 학생자치활동이 시험이나 면학분위기를 흐리고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회 활동에 대한 지지, 지원이 미약하며 활동에 제약이 많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칙은 많은 문제가 있다 하겠다.

학생회칙에 보면 학생회, 학생회의 목적은 학생들의 기구로서 민주적,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적 시민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많은 학교의 학생회칙의 목적으로 명시해 두고 있다.

그러나 과연 많은 학교 혹은 이런 목적을 규정해두고 있는 학생회칙들이 이런 목표를 지향하고 있을까? 그러나 각 학교의 학생회 활동의 실상과 학생회칙을 천천히 살펴보면 학생회 활동의 목표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먼저 분명 회칙의 목적에서는 자율적 자치활동을 규정해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학생회칙의 기능과 권한(혹은 현실적 학생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모든 학생회의 활동은 학교당국(학생회 지도위원회)의 사전·사후 지도뿐만 아니라 승인 또는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이 자율적인 자치활동인가? 물론 학생회 활동이 교육활동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런 과도한 권한은 지도가 아닌 자치활동의 장악, 혹은 사전 통제의 의미 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회칙을 살펴보면 학생회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까지 있다.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진행한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을 통해 만들어진 교칙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189개 학교 중 50%가 넘는 학생회칙에는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정치적 성격을 띠는 서명운동에 참여를 해도 조항에 어긋나게 된다. 위에도 말했듯이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본권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살펴보자. 이것은 역시나 위에도 말했듯이 학생회의 목적이 자치활동이지만 이것은 통제를 의미하며 또한 마땅히 학교운영에 참여해야 할(법적으로도 규정되어있는) 학교교육의 주체의 한부분에 학생이 참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런 규정뿐 만 아니라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또한 학생회장 후보자의 출마제한, 또한 선거 당선자의 학교장(학생회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 혹은 이런 학생회칙 조차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학교, 이런 학생회조차 없는 학교가 태반이다.

과연 이 같은 문제의 대안은 무엇일까? 바로 학생회의 법제화이다. 나라의 법으로 의무적으로 각 학교마다 학생회를 설치하고 또한 법으로 학생회칙을 규정하여 자율적인 학생회가 운영될 기반을 만들고, 학교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이 학교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예를 들자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회 혹은 학생의 참가) 제도적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점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획일적, 권위적인 입시 위주 교육에 의해 입는 인권 침해의 현상과 그로인해 청소년들의 가장 큰 권리 중 하나인 청소년자치활동은 어떻게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지 이야기 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의 원인은 전폭

적으로 입시 위주 교육에 있다고 본다. '사회제도에 순응하고 비판적 논리가 결여된 엘리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학입시교육은 잠마저도 제대로 잘 수 없게 하면서 강제로 공부를 시키는,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를 유발시키며 이러한 모순점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할 청소년자치활동마저 방해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어야 하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더 멀리 보자면 입시 위주 교육의 근간은 바로 학벌 사회에 있다. 고졸보다는 대졸, 2류 대학보다는 1류 대학을 더 선호하는 학벌 사회는 입시 위주 교육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학벌사회를 타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입시 위주 교육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존재한다. '대학'과 '입시'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지금의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라 말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 청소년들의 고통과 절망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하루 빨리 반 인권적인 입시 위주 교육을 없애고, 민주적이며 청소년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청소년들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제도가 도입되게 해야 할 것이다.

<첨부 자료>

■ 강제자율보충신고센터(1318virus.net)에 접수된 신고내용 중에서 학생의 의견

· 학 교 : [경기 수원]** 고등학교

· 신고항목 : 0 또는 -1교시 | 강제보충수업 | 강제야간자율 |

· 신고내용 :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학교는 스승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 메워진 듯 합니다. 선생님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만큼 선생님께서도 저희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셔야 하는데 수원 00고는 현재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학생이 자율 학습을 하지 않았다고 빵을 때리고 발로 차거나 규정에 어긋난 몽둥이로 구타를 하여 아이들의 몸에는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누가 그런 짓까지 해가면서 애들을 학교에 잡아두고 싶으시겠다면, 선생님들의 의견이 아이들의 의견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참혹한 행위를 교육의 공간인 학교에서 자행하고 계신 것에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수원 00고 뿐만이 아닙니다. 수원에 있는 모든 학교가 지금 강제 야간 자율 학습 때문에 학생의 참된 교육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아이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수원의 일만도 아닙니다. 지금 서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한숨 소리가 가득합니다. 게다가 서울에서도 일부 학교가 몰래 강제 야간 자율 학습을 조금씩 하는 현상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참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교사가 학생에게 거짓말을 하고, 교육부에 거짓말을 하는데 학생들이 그 교사를 믿고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것은 선생님들의 이기심입니다.

0교시를 수학- 재미있는 실용 수학 따위로 허위 조작하여서 강제로 학부모들의 귀중한 돈을 갈취해갔으며, 아이들을 때리는 것을 당연한 것인 듯 떠돌고 다니십니다.

두발 자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학교의 교칙이니 따르라 하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학생측에서는 그 것을 비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의 목소리마저 묻혀버리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원 지역에 아니 우리 나라 전지역에 이러한 참혹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지 않도록 [청소년인권센터] 여러분께서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학생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일요일, 고교생이 실종된 도시**(www.1318virus.net 기사 중에서)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강제 자율학습·보충수업 시행령을 전교조 측과 협상하여 내린 바 있고 비교적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생들은 415 총선을 치르는 날, 어린이 날, 심지어 매주 일요일에 학교에 등교하는 등 서울 학생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 독립신문 바이러스(www.1318virus.y)는 지난 5월 8일(토) 비평준화 지역의 하나인 포항을 찾았다. 평일과 달리 토, 일요일이면 명동, 신촌의 온갖 극장들과 거리에서 청소년들이 넘실거리는 서울과 달리, 포항엔 토, 일요일 모두 고등학생이 없었다. 나이 어린 중학생이거나 혹은 실업계 학생 소수만이 포항 시내에서 마주칠 수 있었다.

포항엔 고등학생이 없나? 포항의 고등학생은 어디에 있는가?

바이러스 팀은 일요일 아침 포항의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며 고교생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포항의 고교생들은 대체로 토요일, 일요일까지 강제적으로 자율학습·보충수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모습을 생생하게 바이러스 영상뉴스에 담아 보았다.

(영상 뉴스 <mms://movie.heemang21.net/20040510/yaja.wmv>)

<참고 자료 2>

입시위주 교육과 학생인권

이 문 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청소년위원장)

우리교육의 입시위주 체제는 학생들의 삶의 상당부분을 제약하고 있다. 중등교육과정을 마치면 인생이 결정되는 학벌사회에서 보통교육으로서 중등교육이 설 자리는 이미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현재의 희생을 통해 학생의 미래를 보장하려는 비정상적인 활동과 행위가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비상식이 상식을 전복시킨 상태에서 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인 지 오래며 대학을 가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정리되어야 할 것들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은 권위주의적인 학교와 교육당국이 입시교육을 매개로 거의 몰가치 한 것으로 취급하는 대표적인 교육적 가치 중의 하나다. 그러므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표적인 세 가지 인권침해 사항을 통해 우리 학교의 현재 모습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학생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1. 0교시, 야자, 보충을 통한 인권 침해

1) 실태

상당수의 인문계고등학교에 0교시, 야자, 보충이 강제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전교조의 반대로 0교시, 야자, 보충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편법적인 운영이 여전하다.

보충수업을 하겠는가? 하고 싶다면 어떤 분야를 원하는가? 라고 학생들에게 묻지 않는다. 희망학생의 다양한 뜻을 학교에서 감당하기도 힘들고, 비희망학생이 생길 경우 한 곳에 모아 놓을 공간이 없다고 한다. 즉 관리가 힘들다는 거다.

야간자기주도학습을 하겠는가? 라고 묻지 않는다. 감독교사 순서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아이들을 야자에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알아보라는 학교관리자는 있지만 강제 보충과 강제 야자와 강제 0교시가 결국 학생들에게 편법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제약하는 문제임을 심사숙고하는 관리자는 없는 상황이다.

'보충수업 희망원'을 놓고 '△△△강좌를 희망한다고 작성하라'는 교사의 지시를 받는다. 실제 보충수업시간에는 '국영수사과'를 중심으로 정해진 시간표대로 수업한다. 희망자를 받아야 하는 '희망원'에 희망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은 처음부터 없었고, 희망하지 않을 경우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협박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원칙이란 없다. 도리어 불법임을 알면서도 강요하고, 서류 조작도 서슴지 않는 주도면밀함까지 가르친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일반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은 '무원칙'과 '불법'을 배운다.

2) 무엇이 문제인가?

- 건강권 침해

0교시로 표현되는 강제 0교시와 강제 야자는 대표적인 건강권 침해 행위다. 외국에서는 심지어 대학생의 조기등교까지 개선하는 상황에서 성장기 학생들을 좁은 교실에 하루종일 앉혀 두는 것은 거의 학대행위에 가깝다. 실제 많은 인문계 고등학생이 위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이런 환경에서 정신적으로 과연 건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다. 심지어 도시지역 상당수의 학생들은 강제 야자를 마치고 밤 9시 이후에 다시 학원에 가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취침하고 다시 6시정도에 기상을 하기도 한다.

○ 재산권 침해

보충수업은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듣고 싶은 듣고 싶지 않은 수업을 듣게 하고 돈을 걷는 행위는 명백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강제 야자도 마찬가지다. 야자에 명목상의 추가비용이 들진 않으나 관리교사들에게 시간외 수당외의 관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선 불법찬조금을 걷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 최근에는 3월에 거의 대부분의 교사를 강제적으로 남겨 학생들을 관리하는 학교와 지역이 늘어나면서 교사들에게 보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불법찬조금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 교수-학습권 침해

학생들은 아침 7시 30, 40분에 등교해 밤 9, 10시에 하교한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하루 일과를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꼴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0교시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잠자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학교당국과 교육당국은 이를 교사들의 교수능력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강제 보충으로 인해 수업시수가 25시간을 넘고, 강제 야자로 인해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에 육박하는 교사들로서는 정규수업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도 거의 묘기에 가깝다. 이런 무리한 운영은 정규교육과정에도 영향을 줘 학생들의 무기력 상태가 심화되고 대부분의 정규수업이 질보다는 양 중심으로 진행되어 교사-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 신체의 자유 침해

정규 교육과정 외 시간은 학생 개개인의 시간이다. 학생 개개인은 그 시간동안 자신이 선택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지역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으며, 문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청소년-학생 활동이 활발해 질 수 있는 지역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활동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학교구조는 더 큰 문제다. 주도적으로 활동할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신이 구속됨으로 인해 지역에는 요구가 없고, 지역 인프라는 계속 결핍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나마 있는 지역의 활동들도 거의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3) 대안

이런 비정상적인 교육이 희생과 봉사, 내일을 위한 투자라는 말로 미화되는 것은 모두 학벌사회와 대학선발 구조 때문이다. 학벌사회의 지양은 학벌을 없애야 가능한 문제이고 이는 대학선발 구조의 개선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 바로 국립대학평준화와 더 나아가 대학평준화다. 워낙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기득권층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정책이 중심이 돼 왔었기에 실제 유럽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현실가능한 안이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되기 전에도 대학만을 목표로 하는 교육의 문제를 인정한다면 모든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은 선택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그 선택은 진정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

2. 학생자치활동의 제약

학생회의 회의 개최권, 학생회의 조직 원리라 할 수 있는 학생회칙 제·개정권, 학생회의 의제 설정권, 학생회 조직권(선거에 관한 제반 권한) 등이 모두 학교당국에 위임되어 있다. 학교장은 학생회 개최를 결재하고, 학생회칙을 바꿀 수 있으며, 의제를 설정하고, 선거를 학생부 또는 특활부 교사들에게 위임시킨다. 학교장의 권한은 학생회 내에서 학생회장 보다 더 막강하며, 직선제 학생회장은 학교장의 지시를 따른다. 조직위의 조직이 하부조직을 지휘하는 형태의 이 조직체계는 전형적인 군사조직 체계로서(또는 관료조직 체계로서) 학생들에게 모든 결정과 권리행사에는 더 높은 심판자가 있다는 논리를 내면화시킨다. 이 모든 권리의 위임은 학생에게 교실에서의 학습만을 학습으로 인정하고, 지식의 전수만이 교육이며 오직 대학이 목적인 입시위주 교육에 의해 정당화 된다.

학생은 학교의 모든 일을 교사, 학부모와 함께 공유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은 학운위에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학생회 조직은 명실상부한 자치조직으로서 예결산권과 회칙 제·개정권, 회의 소집권, 집행권 및 학교 제주체와의 교섭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화는 사회의 지향을 학습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론이 경비된 실천을 통해서만 학습될 수 있는 것이기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프로그램화 해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동이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학생에게 주인의 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 교사-학부모와 더불어 학교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게 하는 것은 살아 있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중요한 교육이다.

또한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교수와 학습을, 학급을 통한 교육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학교는 단순히 죽은 지식을 전수하는 곳이 아니다. 학생은 학교를 통해 살아있는, 생동하는, 실천 속에서 숨쉬는 지식을 전수 받아야 한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해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고 익혀야 한다. 지식이 살아있기 위해선, 생동하기 위해선, 실천 속에 숨쉬기 위해선 지식은 소통되어야 하고, 비판받아야 하며, 또 잘못된 것에 저항해야 하고, 올바른 것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저 떠돌아 다니던 온갖 '설'이 진실이하고자 하는 체계화 된 지식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천과 땅이, 투쟁이 배어 있다. 지식은 학교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지식의 땅 속에 배어 있는 그 당시의 상황들, 조건들, 상호작용들은 그저 하나의 결론으로 자리하기 보다는 그 자체로서 소중하고 교육적으로 훨씬 가치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채호 선생의 무정부주의 사상은 민족주의자들의 친일, 민족주의의 한계에 대한 간파, 스탈린식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를 경험한 것이다. 칸토어의 집합론은 보편수학의 꿈, 근대적 합리성의 정신이 가장 충만하던 시절에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수학이 무한의 측정에 도전한 시대 정신이 숨어있는 것이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자신만만하던 서구 근대를 대표하는 합리주의가 1차 대전으로 금이 가는 시대의 우연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식 뿐만 아니라 지금의 학교 자체가 민중의 교육욕구와 자본의 노동력 확보가 맞물려 운동하고 있는 체제다.

그러므로 학생과 교사는 지식에 숨어있는 과정들에 주목해야 하고, 그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이 경험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불가능하다. 교수와 학습은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온전해 질 수 있다. 학생과 교사가 배우기 위해 연대한다. 학생자치는 교수-학습

의 질을 바꾸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지루는 아이들의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프레이리는 대화를 이야기 했다. 대화를 위해 그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촘스키는 학생이 청중의 위치를 떠나서 우리가 건설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공통의 관심사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존재로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공교육체제는 전수를 떠나 연대하고 공감하고, 삶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한다.

3. 비민주적인 학생생활규정

학생들에 대한 체벌, 용의 복장 규제를 통한 용에 대한 통제 등 역시 입시교육에 의해 강제되는 것들 중 하나다. 일 대 감당할 수 없는 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 환경, 말로 설득할 수 없는 비합리한 학교운영, 전혀 아무런 상담-복지-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이 없는 교육행정 체제 하에서 양기숙달을 통해 평생을 결정하는 시스템은 체벌과 통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아직도 부모에 의한 체벌이 용인되고, 학교에 의한 체벌이 용인되는 사회다. 또 일제 시대 이후 계속된 권위주의적 통치구조 속에서 학생다움에 대한 어설픈 합의가 깔려 있는 사회다.

하지만 다양한 의사가 존중되고, 논의와 논쟁을 통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 내는 민주주의적 미래에는 체벌과 통제는 어울리지 않으며 구성원의 생각을 제약해 오히려 사회적인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부모와 교사에 의한 모든 종류의 체벌은 금지되어야 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용에 대한 통제 역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현행 생활규정은 이런 논쟁을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교육주체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규칙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생활규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학칙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모든 생활규정은 구성원의 대표 또는 일정기준을 갖춘 구성원들에 의해 발의되며 구성원의 대표기관 결의 또는 구성원의 직접 결의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학교의 생활규정은 그렇지 못하며 결국 준수의 의무를 강제할 수 없는, 준수 사항 자체가 합리적일 수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법이 민주적이라 하더라도 범법자는 있지만 민주적인 법과 법집행은 범법자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있게 만든다. 하지만 폭압적인 법과 법집행은 범법자에게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관리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다.

생활규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의적인 구성과 집행으로 인해 폭력 및 학교질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힘에 의해 유지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힘에 의한 유지는 다시 힘에 의한 학생간의, 교육주체간의 관계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활규정이 민주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 절차가 제시되고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실제 운영해 볼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해 보면

- 교사-학생 소위원회 구성(1-1, 10명이상, 교사회 대표단과 학생회 대표단으로 구성) 논의
- 교사회와 학생회의 민주적 논의(교사회는 교직원회의를 통해, 학생회는 학급회의-학년회의-대의원회의 절차를 통해 안 마련) → 교사-학생 소위원회 통해 논의
- 학운위 최종 심의의 단계를 거쳐 제정할 수 있다.

4. 제안 그리고...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광고가 있다. 나이에 대해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는 그 광고는 나름의 매력에 있다. 원래 입시는 그저 고등교육에 진학할 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입시는 대학의 철저한 서열화와 사립학교의 문제로 인해 중등교육의 목표처럼 되어 버렸다. 게다가 학벌을 중심으로 짜여진 사회구조가 이를 철저하게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입시교육 하에서 학생인권의 보호와 신장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지만 닭과 달걀의 관계처럼 더 결정적인 축은 있으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시교육에 사로잡힌 학생인권의 문제를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곧 입시교육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변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선 그저 "내 아이, 우리 반 학생, 유아독존 나" 가 아니라 우리 교육을 함께 책임지고자 하는 공동의 실천이 요구된다.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소개

■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런 곳입니다.

○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자발적인 표현기회 제공과 정보화 능력향상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문화기반을 조성코자 청소년 수련실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전환하여 운영 하는 곳입니다.

- 개소 : 2000. 2. 24

- 면적 : 지상4층(421.23㎡)

- 주요시설 :

1층: 인터넷부스, Teacher's Office Room, 상담실, 열람실, 안내데스크

2층: 밴드연습실, 댄스연습실, 노래연습실

3층: 다목적홀(강당)

4층: 동아리1실, 동아리2실

- 주요행사 : 청소년문화활동가발대식, 청소년 영상회, 청소년과 선생님이 함께 만드는 푸른축제, 사진공모전, 국제교류-나누는 사랑·함께하는 아시아, 청소년 거리카페, 청소년거리공연, 동아리 한마당, 기타 봉사활동

- 위탁운영 : 울산 YWCA / Homepage: <http://www.ulsywca.or.kr> 052)247-3520

- 이용시간

평 일 09:00~21:00

토요일 09:00~20:00

일요일 12:00~18:00

※ 휴관 : 신정, 추석, 설날, 크리스마스

■ 청소년이면 누구나 출입과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9세 ~ 만24세까지)

■ 전화 : 울산(052)212-1140 / FAX: 울산(052)212-1020

홈페이지 : <http://www.ulsan1318.net>

■ 시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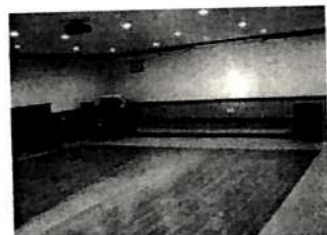
(도서열람실)



(인터넷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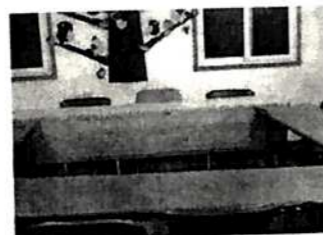
(밴드연습실)



(다목적실)



(1층 로비)



(동아리실)